

# '인권의 말문' 트기 위한 입을거리 절실

## '인권' 배울 수 있는 교육 필요해 ... 시장성 없더라도 관련서 출간돼야

류은숙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올해 초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설한 인권활동가 훈련과정에 다녀왔다. 그곳 사범대학에서 개설한 '인권교육론' 수업을 미국 학생들과 함께 들으면서 경험한 일이다.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해당 과목의 교재를 구입했는가'는 질문 항목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 '인권'이 내 생활과 공부에 별 관련이 없으며 책값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답변이다.

### 진지한 논의 가로막는 무관심

이처럼 '인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는 생각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 21세기는 인권의 세기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인권이 정작 자신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인권은 양심수나 채소자, 노숙자와 같은 특수한 집단에 어울리는 것이고 나와는 별 관계없는 것이라고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인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과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인권'을 가볍게 입에 올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건 내 권리야' 목청을 높일 때, 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자신의 이기적인 요구에 '권리'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갖다 붙이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진지한 인식 없이 틈만 나면 갖다 붙이는 '인권'이니 '권리'니 하는

인권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입을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책이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말문을 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판인이 인권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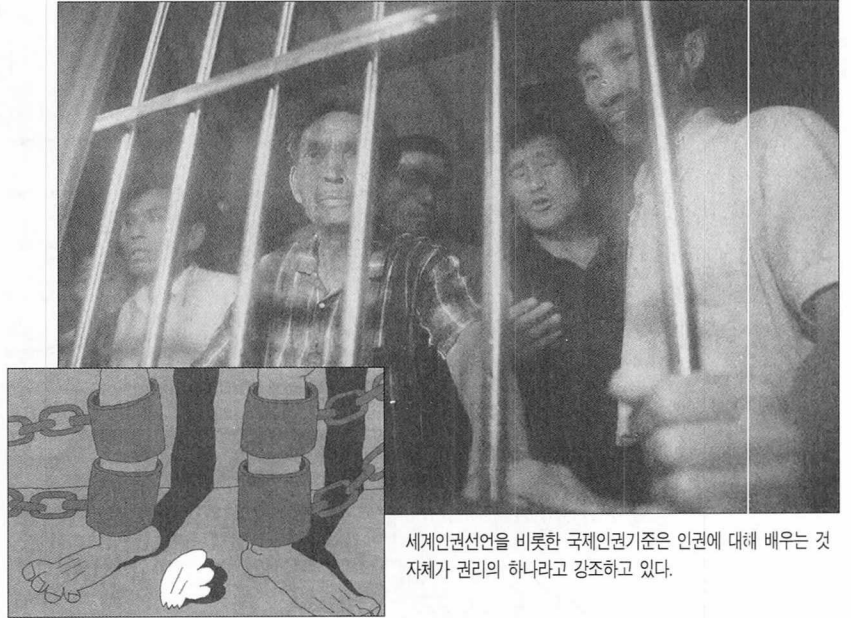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려운 만큼 더욱 값진 일일 것이다.

말들은 오히려 인권의 적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수의 이해가 걸린 단순하지 않은 현상에 대해 '그건 내 권리야'라고 선언해 버리면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권리나 인권의 주장은 정작 인권의 개념과 가치를 흐릴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이해 없이 선언돼 버리는 '인권'은 먼저 자리를 점령하고 남의 출입을 막아버리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단순논리로 폐쇄적으로 선언돼 버리는 인권은 진지한 정치적 논의와 행동을 가로막고, 인권을 사회와는 관련 없는 개인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 위와 같은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인권문제는 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엇일까?

첫째, 과거청산이다. 인권 분야에서는 '불처벌(impunity)'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어느 누가 '법'을 포함한 '인권보장의 기준'을 존중하려 들겠는가? 인권기준이라는 것은 지켜지지 않는 중립장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사회를 지배할 때 가해자는 기준을 무시하고 부담 없이 인권을 침해할 것이며 피해자는 법과 제도에 호소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길 것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은 이처럼 인권보장의 가능성을 아예 가로막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처벌은 현재와 미래의 인권존중을 가능케 하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다. 최근 박대통령기념관 설립 국가지원 논의에서 보이듯 과거에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한 무제한적인 관용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둘째,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가 있다. 인권은 법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용가능한 법과 제도가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보장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받아 왔고,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노동관계법이

나 성·연령·장애·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돼왔다.

기존의 법과 제도의 정비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걸맞게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설치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최근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가 한 예인데,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돕고 인권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인권교육 등을 주관하는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인권위원회의 설치는 유엔의 오랜 권장사항이다. 하지만 김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문제는 법무부의 독단과 오만 속이 진흙탕에 빠져 있다. 논의 과정에서 민간단체를 철저히 배제했을 뿐 아니라 법무부의 입김 아래 있는 독립적일 수 없는 인권위원회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신뢰와 협력을 받지 못하는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이름과는 다르게 인권보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는 인권교육의 황무지다. 필자는 인권교육 담당자로서 많은 학생들을 접해왔는데, 법과대학 학생조차 '기본권'에 대해서는 배워본 바가 없다고 답변하는 게 보통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본다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인권 상식은 갖출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변변한 책 없이 이뤄지는 인권교육

국내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 간다 할지라도 인권관련 서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

### <인권 관련서>

책 제목	저자/역자/편자	출판사
인권교육 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사람생각
한국 감옥의 현실	이승호·박찬운 외	사람생각
한국 인권의 실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사비평사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내일을 여는 책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역사비평사
청소년 인권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인간과 복지
북한의 인권백서	평화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외국인노동자-환영받지 못한 손님	허창수	분도출판사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나남출판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	나남출판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오름
인권의 역사	스기하라/석인선	한울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장호순	개마고원
인권론	카렐 바샤/박홍규	실천문학사

#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김신명숙 《미스 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를 읽고

변정수 · 미디어평론가

다. 대학 도서관 중에 제대로 된 인권 서가를 갖춘 곳은 없다. 지습을 하고 싶어도 자습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이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매체에서는 성·연령·장애·피부색 등에 기초한 차별과 편견을 바탕으로 간 프로그램은 흔히 접할 수 있다. 방송비평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여과 없이 국민 대다수에게 전달된다. 한마디로 인권을 배울 조건이 아니다.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의 나라라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은 강조하고 있다. 무지의 상태를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느 교육 단계에서도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 '권리와 의무'라는 항목이 교과서마다 있긴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을 뿐,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진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몇몇 대학에 설치된 인권관련 강좌는 변변한 교과서나 참고문헌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인권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된다고 해서 인권교육이 이뤄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권교육은 지식의 습득만이 아닌 인권에 대한 존중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다. 아동이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교실에서 교사가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친하지 않은 대상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선불리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잦은 접촉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인권'과 친근해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많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애깃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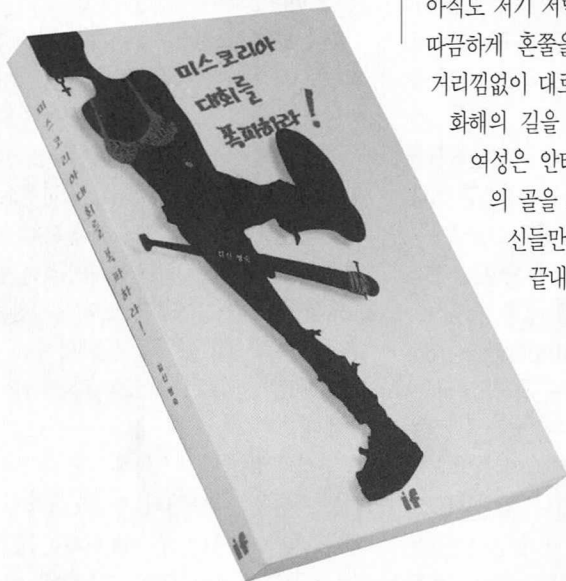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읽을거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권에 대한 책의 출판이 독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 현재 상태론 천 권 이상의 판매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도 말문을 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판인이 인권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려운 만큼 더 값진 일일 것이다. ❖

일종의 고발문학으로 읽을까? 그럴 법도 하다. 이 책은 성 폭력과 성 상품화 사례의 적나라한 '백과사전'이다.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한편의 소설에서 이토록 다양한 사례를 함축적으로 집약한 소설을 본 건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이후 처음인 것 같다.

풍자문학으로 읽을까? 그도 괜찮다. 만지일보식으로 말하자면, '우끼고 자빠진' 남성중심 사회의 허위와 위선, 우스꽝스러움을 향해 속이 후련해지게 날려 보는 '똥침' 한 방! 몇 년 전 배꼽 빠지게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는 저리 가라. 틀림없는 '업 그레이드 버전'이다.

지적 게임으로 읽을까? 성공적이다.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불가능에의 도전)'은 긴박감으로 넘친다.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의 '미스 마플'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전개되는 위기 상황을 하나씩 돌파해간다. 남성우월주의자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것도 여자들이!' 소설·영화·드라마를 통틀어 이 땅에선 거의 처음인 듯.

그러나 나는 성장소설이라는 데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다. '미인대회 폭파 작전'은 표면상의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상황을 주도해 가는 '초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미숙하고 평범한 모습들을 술



**고발문학으로 읽을까? 이 책은 성폭력과 성 상품화 사례의 적나라한 '백과사전'이다.**  
**풍자문학으로 읽을까? 만지일보식으로 말하자면 '우끼고 자빠진'**  
**남성중심 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향해 후련하게 날려보는 '똥침' 한방!**  
**지적 게임으로 읽을까? 성공적이다.**  
**그러나 나는 성장소설이라는 데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다.**



변정수씨.

직하게 드러내서 차라리 짜증이 날 지경이다. 하이고, 이 꼴로 뭘 하겠다고. 그런데 웬걸? 소설의 마지막장을 덮을 때 그들은 모두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이들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깊숙이 묻어 왔던 가슴앓이들을 하나씩 풀어내며 성큼 성장해가는 과정을 따라 읽어가는 건, 앞서 언급한 다른 어떤 미덕과도 비길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옥에 티'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식적 해피엔딩. 독자들에게 숙제로 남겨지는 것이 없다. 적어도 '드러나 있는' 모든 갈등은 해소되고, 등장인물은 모두 적어도 당장은 행복하다. 그래서 너무나 낯설다.

착각하지 말자구. 이걸 소설이야. 소설 속에서 후련하게 폭파해 버린 미인 대회는 아직도 저기 저렇게 멀쩡하고, 소설 속에서 따끔하게 혼쭐을 내 준 마초들은 여전히 거리낌없이 대로를 활보하고, 여전히 서로 화해의 길을 찾지 못한 여성과 또다른 여성은 안타깝게도 점점더 깊이 갈등의 골을 파고 있는데, 소설 속의 당신들만 그렇게 말쑥해진 얼굴로 끝내면 허무하잖아.

한가지만 더. 내내 점점한 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그들은 너무나 평범한 나머지, 그러나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

면 결코 저질러서는 안될 실수들을 너무나 손쉽게 저지른다. 물론 이 소설은 이렇게 변명한다. 내가 눈살을 찌푸렸던 '반칙'은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위기'만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나는 고작 이만큼의 변명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돌파하느라 바빠서, 다 끝나고 나서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데 들떠서, 깜빡 '반성'을 생략한다. 그렇다고 입에 발린 '고해성사'라도 했어야 했다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

이프/A5신/354면/7800원